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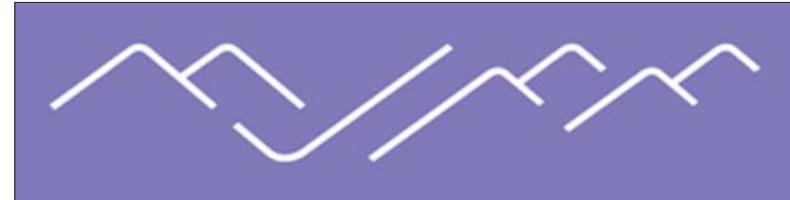
무주산골영화제 '페스티벌아이덴티티' 공개

10주년 맞아 꾸준한 '성장' · 앞으로 '도약' · 새로운 '변화' 의지 담아

초여름 무주의 자연 속에서 여유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무주산골영화제'가 오는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5일간 개최되는 가운데,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바뀐 페스티벌 아이덴티티(심볼과 로고)를 공개한다.

영화와 문화를 사랑하는 여행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가 10회를 맞이하여 '무주산골영화제'만의 정체성을 새롭게 담아낸 심볼과 로고로 이루어진 새로운 페스티벌 아이덴티티(F.I: Festival Identity)를 공개, 관객과 영화인들의 시선을 끈다.

이번에 공개된 '무주산골영화제'의 새 심볼은 '무주산골영화제'의 영문 약자인 'MJFF'를 완만한 곡선의 '산' 형태로 구현하여 영화제의 공간적 정체성을 담아냈다. 여기에 겹친 폰트의 영화제 티이틀을 산의 실루엣 위에 배치함으로써 지난 10년간의 꾸준한 '성장'과 앞으로의 '도약'에 대한 의지를 함께 표현했다. 특히 새로운 페스티벌 아이덴티티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건 컬러로, '원디 비어울렛' (Windy Violet)으로 명명된 이 특별한 색은 '무주산골영화제'의 상징적인 행사 공간인 등나무운동장을 감싸고 있는 등나무꽃의 보라색과 6월 무주의 푸른 하늘색을 함께 담아내고 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앞으로 이 색을 중심으로 무주의 여러 모습을 상징화한 옐로우, 그린, 블루 등 6가지 다양한 서브 컬러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영화제의 다채로운 모습과 함께 변화에 대



무주산골영화제 심볼.

무주산골영화제 Muju Film Festival

무주산골영화제 로고.

한 강한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새로운 페스티벌 아이덴티티는 2020년과 2021년 포스터를 제작하며 '무주산골영화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보여온 김영준 작가와의 협업으로 완성되었다. 독보적인 감상과 예술성을 갖춘 김영준 작가는 아모레퍼시픽, 국립한글박물관 등과의 협업, 김동률과 아이유의 '동화' 뮤직비디오 작업 등으로 국내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새로운 페스티벌 아이덴티티에 대해 "지난 9년동안 많은 관객과 영화인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성장한,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을 버텨보며 도약해 나갈 '무주산골영화제'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굳건하게 지켜 나갈 낭만과 생동감이 가득한 영화제 분위기를 다채롭게 표현하게 될 것이다"며 포부를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1990년대 이전 무주 배경 사진 · 영상자료 찾아요"

무주산골영화제 10주년 기념 '무주 단편 다큐멘터리' 제작

3월 31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 제출

무주군이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무주산골영화제를 기념해 '무주 단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이는 무주의 옛 풍경과 군민들의 영상, 사진을 기반으로 무주의 과거를 기억하고 기록한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대상(뉴비전상)과 영화평론가상을 수상했던 이동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영화제작을 위한 자료는 오는 3월 31일까지

(재)무주산골문화재단에서 수집할 계획으로, 누구든 1990년대 이전에 무주를 배경으로 한 영상과 사진(인물, 기족, 풍경, 지역 및 기죽행사 등)에 담긴 흑백 및 컬러사진, 필름, 비디오 테이프)이 있다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제출하면 된다.

제출 영상이나 사진이 '무주 단편 다큐멘터리'에 활용될 경우 소정의 상품이 제공되며 원

본은 휴대폰과 컴퓨터로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파일과 함께 반환될 예정이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김성옥 팀장은 "가족과 함께 살았던 집, 지나가는 나咽에도 웃음 짓던 학창시절,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걸었던 무주의 풍경 등 어떤 것이든 좋다"며 "누군의 추억을 모두의 추억으로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모아진 자료들을 토대로 완성될 '무주 단편 다큐멘터리'는 오는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 상영하고 국내·외 영화제에도 출품할 예정이다.

무주 관련 사진 및 영상 접수 관련 문의는 (재)무주산골문화재단(무주 신골영화관 063-322-7053)으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마무는 모든 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반려 伴侶, 짹이 되는 동무' 기획전

전북대 자연사박물관, 내년 2월까지 반려 동식물 그림 전시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에서 마음의 안정과 소소한 행복을 주는 반려 동식물 그림을 만나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6일부터 '반려 伴侶, 짹이 되는 동무' 주제로 기획전을 내년 2월까지 로비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자연사박물관 2021 식물세밀화교실 수강생들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관찰하며 도화지에 옮긴 18점의 세밀화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그림동아리 학생들이 그린 반려동물 8점이 전시된다.

박진호 전북대 자연사박물관장은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심리적 만족감과 점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나의 반려에게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최고 옻칠 목공예 대전 최선 다할 것"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대회장에 박종군 장인 재위촉

남원시는 15일 박종군 장인을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대회장으로 재위촉 했다.

박종군 대회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粧刀匠)으로, 제23~24회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의 대회장을 역임하며 대전의 질적 및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위촉장을 수여받은 박 대회장은 "다시 한 번 국내 최고 권위의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 대전의 대회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옻칠 목공예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환주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옻칠 목공예의 대표 고장으로 남원을 꼽게 된 것에는 남원시 옻칠 목공예대전의 역할이 크다"며, "앞으로도 남원의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부탁드



린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은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옻칠목공예'와 '길이분야' 접수를 받아 5월 6일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포함한 총 37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우리영화만들자 청소년영화캠프 개강

지난 14일 순창군 순회문화창고에서 영화감독을 꿈꾸는 순창 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우리영화만들자 청소년영화캠프'의 첫 강의가 이뤄졌다.

이번 캠프는 26일까지 2주간에 걸쳐 영화이론 기초, 촬영, 시나리오, 편집 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강사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한다. 이날 강의를 시작으로 제작 발표 및 상영회를 예고한 3월 중순까지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교육과 실습에 집중할 계획이다.

첫 날은 여균동 감독이 영화연출과 시나리오 등에 대해 직접 교육을 진행하면서 "영화는 시나리오가 나오면 다 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림을 응원했다.

황 군수는 "이번 캠프를 통해 여균동 감독님

에게 여러분이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많은 걸 배우길 바란다"며 "순창을 빛낼 영화인이 탄생할 수 있도록 순창군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